

1면에서 계속 →

조 과장은 “교수가 강의실 수용 인원을 고려해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홈페이지에 증원 관련 공지를 올린다”고 설명했다.

김태용(광고학) 학과장은 학생 수요가 많은 과목을 중심으로 다른 교수님들께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전했다. 김 학과장은 “증원 요청이 너무 많이 있었어서 증원을 안 한 과목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형(국어국문학) 교수는 “정원이 75명인데 33명이 수강신청을 했다”며 “증원 문의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고질적인 수강신청 대란
원인은 교수·강의실 부족

미디어학과와 학생들 사이에선 수강신청 어려움은 인프라 부족에서 비롯됐다. 김 학과장은 교수진 부족을 먼저 거론했다. 미디어학과는 2년 전 교수진을 충원했지만, 당시 퇴임한 교수들의 자리를 충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전체 교수 수 자체는 늘어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강의의 수강 정원을 늘리는 방식은 대안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상태다. 김 학과장은 과제와 평가, 개별 피드백에 소요되는 시간이 타 학과에 비해 많은 미디어학과와 특성 상 대형 강의를 개설하는 게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콘텐츠 제작과 같은 수업은 강의 중심 수업과 달리 학생과 교수 간 상호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 학과장은 또한 “수업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추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구독 비용 등 예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대학 건물 내 대형강의실이 적은 점도 문제다. 정경대 행정실은 “대형 강의실이 부족해 수강 인원이 많은 강좌는 구 한의대 건물 등 다른 건물의 강의실을 활용하고 있

다” 말했다.

반면 국어국문학과 김양진(국어국문학)교수는 “희망담기 결과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몰릴 경우 더 큰 강의실로 옮기거나 증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전했다.

결국 학생들의 수강 수요에 따라 대형 강의를 개설하거나 기존 강의의 수강 인원을 증원하려고 해도 강의실 규모와 교원 수, 수업의 성격, 예산 등 여러 여건이 함께 맞물려 있어 단순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수강신청 어려움
다전공 도입으로 증폭 우려

미디어학과 학생들 사이에선 수강신청이 ‘티켓팅 수준’이라는 자조도 나온다. 전공필수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음 학기를 기약하는 경우도 있다. 증원 역시 학생이 몰리면서 명쾌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김서정(미디어학2022)씨는 “4학년,전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채원(미디어학2022) 씨 또한 “전공필수 과목의 경우 증원 때도 사람이 워낙 몰려서 증원으로 수강신청을 성공해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단과대 행정실은 내년부터 도입될 수강신청 마일리지제가 해당 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마일리지제는 학생 수강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일 뿐, 강좌 수 자체를 늘리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도입된 다전공 의무이수제로 특정학과의 수강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미디어학과 김 학과장은 “선이수 과목을 설정해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막았다”라며 대비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신문은 이러한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미디어학과와 같이 특정학과에만 국한된 현상인지 다음 호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8일 국제캠 중앙도서관 피스홀에서 '2026 학생대표소통회의'가 개최됐다.

(사진=김수인 기자)

2026 학생대표 소통회의 개최

김수인 기자 windsnow07@khu.ac.kr

【국제】학생대표 소통회의가 지난 8일 중앙도서관 피스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과대별 시설과 공간 개선부터 학사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는 각 단과대학 학생회와 총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 및 학교관계자(▲학무부총장 ▲각 단과대 행정실장 ▲총무팀장 ▲교무처장 ▲학사지원팀장 ▲스페이스21사업단장)들이 참석했다. 1부는 각 단과대별 안건 논의, 2부는 총학생회 안건 논의가 이뤄졌다.

외대·공대 학사제도 개선요구
영어강좌·대체과목 학점 인정
개선 필요

외국어대학 학생회는 영어강좌 의무 이수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 학사제도에 따르면 외대 학생은 타 단과대와 동일하게 9학점의 영어강좌를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외대에 개설된 영어강의는 5개뿐이다. 외대 이경빈(스페인어학 2023) 학생회장은 중·고급 회화 등의 전공과목을 영어강좌 이수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교무처 김성수 처장은 “현재 학사제도가 단과대학 간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 특례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대안으로 외대 내 언어학 과목을 영어강의로 개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공과대학은 전공 및 대체 교과목의 학점 인정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공대 내에서 복수전공이나 전과 시 기존 전공에서 이수한 유사 과목을 변경한 전공의 필수과목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대체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유사 과목을 다시 수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공대 행정실 김경희 실장은 “이번 학기 중 민원이 많은 과목을 파악할 것”이라며 “논의를 거쳐 전공기초 과목의 대체 교과목 인정 기준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간 부족부터 노후 시설까지
개선 요구 이어

공간 부족 및 노후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생명과학대학(생대) 학생회는 1층 라운지 조성과 더불어 노후화된 1층 열람실 개선을 요청했다. 총무관리처 관리팀 김홍를 팀장은 “현재 보수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다만 재원 확보와 본부 유관 부서 협의가 필요해 라운지 조성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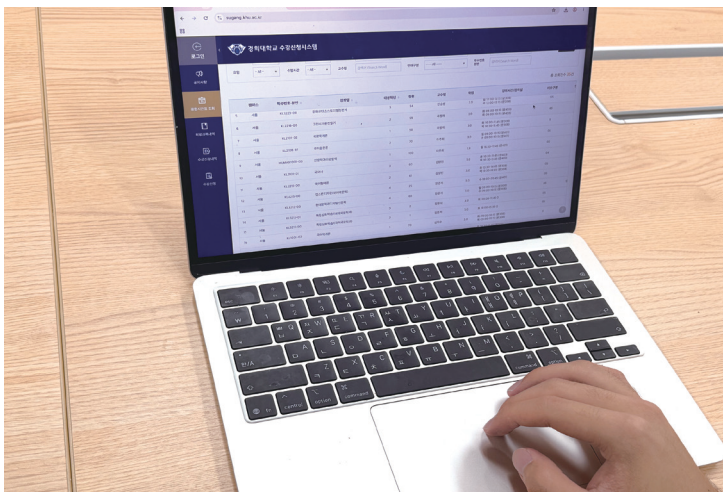
다.

전자정보대학(전정대) 건물의 공간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전정대 건물은 전정대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융합대학(소응대), 응용과학대학(응과대) 총 세 단과대학이 함께 사용 중이다. 이에 2018년에는 ‘미래과학관 설립’ 논의가 시작됐으며, 현재는 부지와 규모, 공간 활용 설계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이스21사업단 이영주 사무국장은 “미래과학관 시설 건립을 우선순위로 추진하겠지만 천억 원가량의 재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 속도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행정실 및 학생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러 단과대학에서는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외대는 떨어져 나간 외벽 보수와 석면 여부 점검을 요구했다. 체육대학은 하이퍼포먼스센터 등 노후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정대 역시 정문 누수로 인한 페인트 벗겨짐, 건물 내부 벽 도색 등 노후 시설과 편의시설 전반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해당 사실들은 인지하고 있으며 가능한 예산을 검토해 차차 보수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학과와 재학생 수는 사회학과와 3배 가량이지만, 열리는 강좌의 좌석 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진=도은오 기자)